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이 윤 주[†]
삼성그룹상담실

김 계 현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경력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이윤주(2001)의 요소목록 평정 매뉴얼로 가공한 후, 81명의 상담자가 가상사례에 대해 사례개념화한 내용을 평정매뉴얼에 기반하여 전문상담자인 3인의 평정자가 따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2차 평정에서는 1차 평정자에 의해 각 요소별 득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정된 진술내용에 대해 상담심리전문가가 세 수준으로 가중점수를 부여하였다. 1차 평정에서 각 유목별로 득점 기준에 부합한 상담자의 비율을 살펴 본 결과, 경력이 높은 상담자가 전체 상담자에 비해 각 요소별로 득점기준에 부합하는 개념화를 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2차 평정 결과와 상담경력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상담 경력과 사례개념화 수준은 .51(1차 평정 결과와의 상관)과 .71(2차 평정 점수와의 상관)의 상관을 보였다. 유목별로는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상담목표 및 계획”이, 각 요소별로는 “대인관계 문제영역”, “내담자 및 문제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평가”, “최종목표”, “상담전략”이 상담경력과 보다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첫째,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사례개념화 수행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둘째, 상담 경력에 따른 수행 수준의 차이는 내담자의 대인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부분, 상담사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더해 상담 목표를 세우는 부분에서 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상담경력이 많아질수록 상담사례개념화 수행 능력도 향상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사례개념화에 있어서 상담경력에 따라 어떤 영역의 수행능력이 더 의미있게 향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담자 및 슈퍼바이저들의 의견에 바탕을 둔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개발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지니며 연구 결과는 상담 및 상담자 교육의 실제와 연구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상담사례개념화, 상담자경력, 상담자 수행 능력

이윤주는 삼성그룹상담실에 근무하고 김계현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윤 주, (100-110)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3층, 삼성상담실,
전화 : 02-729-9073/0 E-mail : happyhelper@hanmail.net

상담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는 내담자의 심리적·대인관계적·행동적 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원인 및 촉발·유지 요인들, 내담자가 가진 강점(strengths)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의 방향과 전략, 기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사례개념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이 축적되어야 하고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과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 중에서 당면한 사례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개념화는 기본 상담기술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학습되기 어려우며,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숙달되어 가는 것으로서, 상담자로서의 전(全) 발달과정을 통해 수행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영역이다(이운주, 2001).

상담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상담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이 학습한 여러 가지 상담 기술과 지식을 자신의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자신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내담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내담자가 호소하고 보여주는 문제들 중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해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담 목표와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일, 각 사례의 각 순간마다 자신이 배운 상담기술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론적 지식을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에 적용하여 상담 사례를 하나의 전체적인 틀로 이해하고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상담 전략 및 기법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은 상담 사례개념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즉 상담을 밀도 있게 진행하여 단기간에 상담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경력에 관계없이 모든 상담자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례개념화를 할 필요가 있다. 사례개념화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이 축적되어야 하고 상담목표 및 개입전략과 관련된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지식과 기술들 중에서 당면한 사례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개념화는 기본 상담기술 교육만으로는 충분히 학습되기 어려우며, 상담 경력이 쌓일수록 점차 더 숙달되어 가는 것으로서, 상담자로서의 전(全) 발달과정을 통해 수행 수준이 향상되어 가는 영역이다(이운주, 2001).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슈퍼비전이나 사례 연구 및 발표 모임에서 사례개념화가 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슈퍼비전 연구에서도 사례개념화를 슈퍼비전의 중요한 한 요소로 포함시키고 있다(예: 김계현, 1992;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 Acker & Holloway, 1986; Bernard & Goodyear, 1998; Holloway, 1995). 여러 교육 영역 중에서 사례개념화는 숙련 상담자에 비해 초급 및 중급 상담자들에 의해 자신의 숙달정도가 낮다고 평가되었으면서, 초급 및 중급 상담자에 비해 숙련 상담자들에 의해 오히려 교육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된 영역이다(문수정, 1999; 방기연, 1996). 또한 한국의 슈퍼바이저들은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으며, 사례개념화를 상담자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한 준거로 지정한 바 있다(심홍섭, 1998).

사례개념화의 중요성 인식이 커져가면서 사례개념화에 관련된 연구도 점차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예: 김수현, 1997; 김은혜, 2001; 류진혜, 1999; 이운주, 2001; 장재홍, 2000; 전재영, 2001; Acker & Holloway, 1986; Bernard, 1979; Holloway, 1995). 김수현(1997)은 정신역동적 접근에서 정신역동적 사례개념화 방식들 중 일부를 소개하고 평정기간 일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장재홍(1999)

역시 정신역동적 접근에서의 사례개념화의 한 분과라고 할 수 있는 내담자 계획공식화(plan formulation)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정신역동적 접근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내담자가 상담에 대해 갖는 계획에 대한 연구로서, 전체적인 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류진혜(1999)는 인지기술을 교육하는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류진혜의 연구는 미시적인 상담기술이 아닌 상담사례 및 상담사례운영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적 능력이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서구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정도의 사례개념화 요소에 대한 기술(skills) 향상 정도만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네 가지 요소로는 사례개념화 요소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서구 연구의 경우를 살펴 보면 Loganbil과 Stoltenberg(1983)는 상담 및 수퍼비전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개념화 양식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사례개념화 양식을 개발하였다기 보다는 상담 및 상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소개한 것이었다. Stevens와 Morris(1995) 역시 그들의 연구에서 사례개념화 양식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연구 역시 경험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정리해 낸 것은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하겠다.

이윤주(2001)는 선행연구들에서 수집한 사례개념화 요소들에 대해 전문 상담자들의 분류 및 정리와 전문 수퍼바이저들의 타당성 확인 절차를 거쳐서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을 개발하였다. 목록을 구성하고 있는 27개 요소들은 상담자의 경

력에 따라 상담자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은혜(2001)는 이윤주의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평가도구로 하여 초급 상담전공자와 자원봉사 상담원들 간 사례개념화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자원봉사 상담원들이 초급 상담전공자들에 비해 사례개념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결과는 사례개념화 능력이 상담 이론 및 지식의 학습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전재영(2001) 역시 이 목록을 평가도구로 하여 상담자들의 개념 수준(conceptual level)이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개념 수준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사례개념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은혜와 전재영의 연구는 이윤주의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의 타당성을 확인한 연구들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례개념화는 상담자 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한 준거가 된다(심홍섭, 1998). 이렇게 본다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의 구성 유목 및 구성 요소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념화 수행능력이 상담 경력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윤주(2001)의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에 대한 타당화 연구의 일환으로서, 상담자들의 상담경력과 사례개념화 수행능력간 상관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상담자들이 직접 사례개념화를 한 내용에 대해 연구전반부에서 마련된 요소목록상의 유목과 소속 요소별로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평정점수가 상담자들의 상담경력과 상관을 나타내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상의 어떠한 부분의 능력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지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상담경력별로 상담사례에 대한 사례개념화 수행능력의 차이가 구체적으

로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어 상담자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사례개념화 능력상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더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상담교육주체들로 하여금 이러한 틀에 의해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례개념화 교육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퍼비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례개념화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상담 및 수퍼비전에서 사용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상담 경력에 따라 특별히 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사례개념화 요소 및 유목이 밝혀짐에 따라 상담사례개념화 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여줄 사례개념화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을 구안할 수 있는 기초를 상담 및 상담 교육 실무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 및 사례개념화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많은 연구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이후 사례개념화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에서 탐구된 내용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례개념화 요소 목록에 포함된 유목과 각 요소들간에 사례개념화 실제에 사용되는 빈도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
은 상담자의 경력과 상관이 있는가?

방 법

연구의 절차는 크게 상담자들에 의한 사례개념화 작성, 1차 평정, 2차 평정, 결과분석의 네 가지 과정으로 구분된다. 각 절차별로 연구참여자와 연구 방법을 간략히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개념화 작성

가상사례를 보고 상담사례개념화를 하는 작업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81명이다. 이들은 전국의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와 사회상담기관 및 시설 상담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여자 71명(87.7%), 남자 10명(12.3%)이다. 평균 연령은 32.6세, 상담 경력은 평균 3.5년이다.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를 대략 3분하여 표 1로 제시하였다. 이들이 상담경력질문지상에 중복응답으로 보고한, 상담시 채택하는 이론적 접근은 정신역동 30명, 인간중심 34명, 인지행동 19명, 행동주의 6명, 질충접근 53, 기타 4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개요에 대한 설명, 연구 참여 수락에 대한 감사 서신을 읽고 상담사례개

표 1. 연구대상자 관련 정보

연 령	빈도(%)	상담경력	빈도(%)	사례경험	빈도(%)	학 령	빈도(%)
30세이하	28(34.6)	0-1년	35(43.2)	0-5 사례	30(37.0)	석사과정·석사	56(69.1)
31-35세	32(39.5)	2-5년	27(33.3)	6-99 사례	27(33.0)	박사과정·수료	16(19.8)
36세이상	21(25.9)	6년이상	19(23.5)	100사례이상	24(30.0)	박사학위 소지	9(11.1)
평 균	32.6세	평 균	3.51년	평 균	166.28 사례		

념화에 대한 정의와 설명 및 작성 방법을 읽은 다음, 함께 제시된 가상사례를 읽고 나서 25-30분 동안 사례개념화 작성 양식지에 자신이 세운 사례개념화 내용을 적었다. 사례개념화 작성이 끝난 다음에는 사례개념화 작성양식 뒤에 별첨으로 제시된 경력질문지에 응답하였다.

1차 평정

평정의 기준이 되는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은 이윤주(2001)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상담전문가들에 의해 목록이 수집되고 내용 타당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이 목록은 8개 하위유목(표 2 참조), 총 27개의 사례개념화 요소(표 3 참조)로 구성되어 있다.

평정자는 3인의 전문상담자로서 평정당시 2명은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명은 박사수료자였다. 성별은 3인 모두 여자로서 이들의 연령은 30세에서 35세까지이며 이들의 상담경력은 2-5년이다. 평정 매뉴얼은 상담심리 전문가 3인에게 가상사례와 사례개념화 요소목록과 각 요소들에 대한 설명을 인쇄물로 제공한 다음 각 사례개념화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을 진술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들의 진술을 모아 유사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평정자들은 총 20시간 가량의 평정훈련을 통해 평정 매뉴얼과 가상사례를 숙지하고 5-6개의 연습용 사례개념화 내용으로 함께 연습하였다. 평정 결과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는 평정자들과 본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여 평정 매뉴얼을 더 깊이 숙지하도록 하였다. 평정자간 일치도는 카파지수를 사용하였다. .7이상의 평정자간 일치도가 확보된 다음 평정자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평정에 착수하였다.

2차 평정

1차 평정에서는 진술 내용에서 특정 사례개념화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그 진술 내용이 득점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여부만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사례개념화 진술에 대한 수준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따라서 2차 평정에서는 1차 평정이 끝난 자료들 중 득점을 한 요소들에 해당되는 진술문들에 대해, 상담심리 전문가로 하여금 그 수준을 3수준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전문평정자는 1인으로 상담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인증)로서 여자이며, 상담실무 경력 10년, 슈퍼비전 경력 5년, 박사학위 소지자이다. 2차 평정 지침서에서 사례개념화의 간략한 정의와 의미, 전문가 평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평정지침을 제시하였다. 평정기준은 득점 기준에 부합할 뿐 진술된 내용의 질이 비교적 빈약한 경우는 수준1, 득점기준에 부합하면서 진술된 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경우는 수준2, 진술내용의 수준이 우수할 뿐 아니라 전체 사례개념화 내용과 맥락상 일관되면서 전문적인 진술이 된 경우 수준3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결과 분석

연구참여자들이 사례개념화한 내용에 대해 1차 평정한 결과와 2차 평정 결과를 27개 각 요소별로 코딩하고 경력질문지상의 내용도 함께 입력하였다. 그런 다음 유목별 평정점수 및 사례개념화 진술문에 나타나지 않은 요소의 개수, 0점을 받은 요소의 개수, 득점을 한 요소의 개수를 각각 계산하였다. 먼저, 각 유목과 요소들에 대해 몇 명의 피험자가 사례개념화에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정에서 득점한 인원을 전체 81명과

경력 상위 1/3에 해당하는 29명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연구문제1). 그리고 1, 2차 평정 점수의 총점과 유목별 합계점수들과 상담경력간 상관의 분석(연구문제2)에서는 Pearson의 상관계수를 채택하였다. 결과의 신뢰도를 판단하기 위한 유의도는 95% 및 99%구간으로 한정하였다.

결 과

사례개념화 요소의 사용빈도분석

전체 상담자 81명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 경력이 상위 1/3(4.5년 이상)에 해당되는 29명의 고경력 상담자에 대해서, 1차 평정에서 각 요소별로 득점을 한 인원수를 유목별로 합산하여 제시하고 유목별로 소속된 요소의 개수가 같지 않으므로 유목별로 소속된 요소의 수로 나누어 '요소당 평균'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소당 평균 인원수를

를 전체 인원으로 나눈 백분위를 함께 제시하였다(표 2). 전체 인원에 대한 요소당 가능한 평균 인원은 최대 81명에서 최소 0명이며 고경력 상담자에 대한 가능한 요소당 평균인원은 최대 29명에서 최소 0명이다

전체 인원에서 각 유목별 득점인원 중 가장 낮은 득점 비율을 보인 유목은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외(상황)적 요인"으로서 전체 인원의 6% 정도에 불과한 사용빈도를 보였다. 가장 높은 득점 비율을 나타낸 유목인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은 전체 인원의 약 64%, 약 52명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력 상담자 29명 중 득점인원을 살펴보면 8개 유목 모두에서 전체 상담자 중 득점인원의 비율에 비해 득점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외(상황)적 요인" 유목은 득점비율이 높아지긴 하였으나 고경력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다른 유목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비율을 보여 주었다. 많은 상담자에 의해 사례개념화에서 사용

표 2. 1차 평정시 유목별 득점인원

사례개념화 하위영역	전체 상담자 중		고경력 상담자 중	
	총인원	요소당 평균(%)	총인원	요소당 평균(%)
내담자 현재 문제, 상태 및 관련 증상	97	19.40(23.95)	45	9.00(31.03)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84	28.00(34.57)	31	10.33(35.63)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	92	15.33(18.93)	41	6.83(23.56)
문제 관련 내담자의 외(상황)적 요인	10	5.00(6.17)	7	3.50(12.07)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103	51.50(63.58)	43	21.50(74.14)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52	17.33(21.40)	32	10.67(36.78)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46	23.00(28.40)	26	13.00(44.83)
상담목표 및 계획	182	45.50(56.17)	74	18.50(63.79)

주. 전체상담자인원=81명, 고경력상담자인원=29명
총인원=소속 요소별 득점인원의 합, 요소당평균=총인원/소속요소의 수

된 유목을 득점인원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전체 상담자와 고경력 상담자에서 공통적으로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상담목표 및 계획”이 1, 2위로 나타났다. 3위로 나타난 유목은 전체 상담자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이었으며 고경력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로 나타났다.

즉 다른 부분에 대한 개념화에 비해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인원의 상담자들만이 자신의 개념화에 포함시켰다. 또 사례개념화를 할 때 상담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이 어떠한지 이해하고 상담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 경력이 높은 상담자들이 전체 상담자에 비해 내담자의 문제와 내담자에 대해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을 자신의 사례개념화에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목별로 자신의 사례개념화에 포함시킨 상담자의 비율은 최대에서 최소까지 60% 이상의 편차를 보여 주었으므로 득점 인원의 차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비율을 27개 세부 요소별로 득점인원을 계산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상담자에서 득점 인원을 보면 “지금 상담에 오게 된 계기”, “통찰 수준 및 내용”, 내담자의 “원함(wants)”,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 여건”,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대처 전략”,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전체 81명 중 10%인 8명보다 적은 인원만이 득점한 요소들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인 41명 이상이 득점한 요소를 득점인원이 많은 순으로 보면 “상담전략”, “과정목표”, “대인관계 문제영역”, “대인관계 양

표 3. 1차 평정시 요소별 득점인원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득점인원(%)	
	전체	고경력
지금 상담에 오게 된 계기	7(8.64)	4(13.79)
구체적 호소들	10(12.35)	5(17.24)
증상	30(37.04)	13(44.83)
핵심문제 및 정서	37(45.68)	16(55.17)
객관적 정보	13(16.05)	7(24.14)
발달적 역사	45(55.56)	19(65.52)
문제의 기원	22(27.16)	8(27.59)
과거 문제력 및 그당시 상황	17(20.98)	4(13.79)
자아개념	18(22.22)	7(24.14)
통찰수준 및 내용	6(7.41)	1(3.45)
인지적 스타일 및 특징	21(25.93)	9(31.03)
정서적 스타일 및 특징	33(40.74)	17(58.62)
신체, 생리, 행동적 특징	12(14.81)	6(20.69)
원함(wants)	2(2.47)	1(3.45)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여건	4(4.94)	1(3.45)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6(7.41)	6(20.69)
대인관계 양상	50(61.73)	20(68.97)
대인관계 문제 영역	53(65.43)	23(79.31)
긍정적 상황과 강점	23(28.40)	15(51.72)
대처 전략	1(1.23)	1(3.45)
부정적 상황과 약점	28(34.57)	16(55.17)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4(4.94)	4(13.79)
내담자 및 내담자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평가	42(51.85)	22(75.86)
최종목표(장기목표)	31(38.27)	17(58.62)
과정목표(단기목표)	71(87.65)	26(89.66)
상담 전략	76(93.83)	29(100.00)
상담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	4(4.94)	2(6.90)

상”, “발달적 역사”, “내담자 및 내담자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평가”로 나타났다.

고경력 상담자로 대상을 국한해서 득점 인원과 그 비율을 살펴 보면 “통찰 수준 및 내용”, 내담자의 “원함”, “대처전략”, “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들”이 10% 미만의 상담자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이상 득점한 요소를 득점인원이 많은 순으로 보면 “상담전략”, “과정목표”, “대인관계 문제영역”, “내담자 및 내담자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평가”, “대인관계 양상”, “발달적 역사”, “정서적 스타일과 특징”, “최종목표”, “부정적 상황과 약점”, “핵심 문제 및 정서”, “긍정적 상황과 강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개념화수행능력과 상담경력의 상관

1차 평정에서 사례개념화 요소가 있으며 득점 기준에 부합할 만큼의 수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요소 수의 합계(‘1차 평정에서의 득점요소수’로 표기)와 상담 경력간의 상관 1차 평정에서 득점한 요소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에 대해 세 수준의 가점을 한 2차 전문가 평정 결과의 합계점수(‘2차평정에서의 총점’으로 표기)와 상담경력간의 상관을 분석하여 표 4로 제시하였다.

‘1차평정에서의 득점요소수’는 득점기준에 부합하여 1점을 받은 요소의 합계를 뜻하므로 가능한 점수의 폭은 0에서 27이 된다. 한편 ‘2차평정에서의 총점’은 득점한 요소에 대한 사례개념화 내용을 세 수준으로 분류하여 평정하게 되므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폭은 어느 하나의 요소에서도 득점하지 못한 경우인 0에서 모든 사례개념화 요소에서 득점하고 모두 수준3으로 평정되는 경우인 81점까지가 된다. 상담자들은 1차 평정에서 득점한 요소들에 대해 2차 평정에서 평균 약 2점 정도의 가점을 받았다. 표 4는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행 수준은 상담경력과 유의미한 정적

표 4. 상담경력과 평정결과의 상관

	1차 평정에서의 득점요소수	2차 평정에서의 총점
평균	8.31	15.72
표준편차	2.95	8.42
상관계수	.51 **	.71 **

주. ** $p < .01$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차 평정에서 단순히 득점을 한 요소의 개수보다는 전문가 평정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된, 즉 사례개념화 진술의 수준을 세분하여 측정된 가중치점수가 상담경력과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1차 평정에서 득점한 요소수 및 2차 평정에 의해 가중치가 부여된 점수의 합을 유목별로 계산하여 상담경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5).

표 5에서 보듯이 1차 평정 즉 단순히 각 사례개념화 요소가 비교적 타당하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평정하여 득점기준을 통과한 요소수의 합계와 상담경력간 상관에 비해, 수준에 가중치를 두어 평정한 2차 평정점수의 합계와 상담 경력간 상관에서 상관계수가 일관되게 높아졌다. ‘2차 평정시 총점’과 상담경력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특히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 유목과 “상담 목표 및 계획” 유목은 상관계수가 .5를 웃도는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 중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와 상담 경력의 상관계수가 .6에 가까운 정도로 가장 높으며, ‘1차 평정시 득점요소수’와 상담경력간 상관에서도 역시 .4를 넘는 높은 상관을 보여주는 유목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개념화 능력 혹은 수준에 있어서, 높은 경력의 상담자는 경력이 낮은 상담자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보다 우

표 5. 유목별 평정점수와 상담경력간 상관

사례개념화 하위영역	1차평정시 득점요소			2차평정시 총점		
	M	SD	상관	M	SD	상관
내담자 현재 문제, 상태 및 관련 증상	1.26	1.16	.24 *	2.26	2.23	.45 **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1.05	0.93	.00	1.86	1.66	.16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개인적 요인	1.15	0.94	.17	2.09	2.04	.31 **
문제와 관련된 내담자의 외(상황)적 요인	0.12	0.33	.31 **	0.20	0.58	.33 **
내담자의 대인관계 특성	1.27	0.69	.24 *	2.47	1.74	.48 **
내담자의 자원 및 취약성	0.67	0.77	.36 **	1.22	1.61	.47 **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0.58	0.61	.44 **	1.20	1.52	.59 **
상담목표 및 계획	2.21	0.80	.30 **	4.42	2.40	.57 **

주. * $p < .05$ ** $p < .01$ M=평균 SD=표준편차

수한 사례개념화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상담경력이 많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와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상담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7개 사례개념화 요소 각각에 대해 1차 평정에서의 득점 상황과 2차 전문가 평정에서의 가점 상황에 대한 상담 경력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요소에서 1차 평정 결과와 상담 경력간 상관에서보다 2차 가점평정결과와 상담 경력간 상관에서 상관계수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4를 넘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준 요소로는, 1차 평정의 득점 상황에서 “내담자 및 내담자 문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가 나타났으며 2차 전문가 평정 점수와 상담 경력간 상관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영역”, “부정적 상황과 약점”과 “내담자 및 내담자 문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 “최종 목표”, “상담전략”이 나타났다.

“과정목표”와 “상담 전략”은 1차 평정의 득점

상황과 상담경력간 상관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가 진술의 수준을 평정한 2차 평정의 가중치점수와 상담경력간 상관에서는 상관계수가 4.5배 이상 커졌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도 1차 평정 점수와 상담경력간 상관은 극히 낮았으나 (.01) 2차 평정의 가점과 경력간 상관계수는 .36으로 상당히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상담경력이 적은 상담자도 과정목표나 상담전략을 사례개념화에서 수립하기는 하나 그 수준이 낮거나 전체 사례개념화 내용과의 체계적 관련성에서 미흡하며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을 사례개념화를 할 때 포함시켜 진술하지만 그 수준은 낮은데,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과정목표”, “상담전략”이나 “내담자의 대인관계 양상”에 대해 질적으로 우수하고 전문적인 진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담자 및 내담자 문제 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는 1, 2차 평정에서 모두 상담경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개념화 능력 및 수준에 있어서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가 상담경력이 낮은 상담자

표 6. 상담경력과 각 요소에 대한 평정의 상관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	1차평정 상관계수	2차평정 상관계수
지금 상담에 오게 된 계기	.27 *	.28 *
구체적 호소들	.12	.17
증상	.13	.30 **
핵심문제 및 정서	.18	.33 **
객관적 정보	.07	.05
발달적 역사	.12	.27 *
문제의 기원	-.07	.02
과거 문제력 및 그당시 상황	-.18	-.09
자아개념	-.02	.06
통찰수준 및 내용	-.04	-.03
인지적 스타일 및 특징	-.02	.13
정서적 스타일 및 특징	.26 *	.38 **
신체, 생리, 행동적 특징	.10	.10
원함(wants)	.22 *	.21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여건	-.02	.06
문제를 지속시키는 상황적 요인	.37 **	.35 **
대인관계 양상	.01	.36 **
대인관계 문제 영역	.25 *	.40 **
긍정적 상황과 강점	.26 *	.34 **
대처 전략	-.02	.03
부정적 상황과 약점	.31 **	.43 **
핵심문제에 대한 이론적 설명	.19	.32 **
내담자 및 내담자관련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평가	.43 **	.59 **
최종목표(장기목표)	.25 *	.43 **
과정목표(단기목표)	.07	.37 **
상담 전략	.14	.52 **
상담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	.06	.14

주. * $p < .05$ ** $p < .01$

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내담자 적인 이해를 하는 측면임을 짐작하게 한다.
 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단편적이지 않은 종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상사례에 대해 다양한 상담경력을 가진 81명의 상담자가 작성한 사례개념화 내용에 대해 1차 평정 및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2차 가점 평정의 결과를 계산하여 첫째 각 유목과 요소별로 득점인원과 비율을 빈도 분석하였으며 둘째, 상담자의 상담경력(상담실무 연수)과 상관 분석하였다.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목별로 전체 81명의 상담자와 29명의 고경력 상담자의 득점 비율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유목에서 고경력 상담자의 득점 비율이 전체 상담자에 비해 더 높았다. 이처럼 상담자의 상담경력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사례개념화에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는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사례개념화를 할 때 보다 포괄적으로 해 나간다는 점을 의미한다 하겠다. 상담 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사례개념화를 할 때 각 사례개념화 요소들에 대한 진술의 수준 또한 더 높아진다는 점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평가도구로 사용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의 타당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득점 비율을 27개 요소별로 살펴본 결과 유목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경력 상담자의 경우 전체 상담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득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 주었다. 전체 상담자와 고경력 상담자에서 공통적으로 10% 미만의 득점 비율을 보여준 요소로는 “통찰 수준 및 내용”, “원함(wants)”, “문제와 관련된 현재 생활 여건”, “대처전략”, “상담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엄밀한 해석을 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자 나름

대로 추론을 해 보자면 이들 요소들은 기타 득점 비율이 높은 요소들과 개념적인 차원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되며, 사례 발표 및 수퍼비전에서도 다른 요소들과 독립적으로 다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제 상담사례를 개념화할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과의 배타성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통찰 수준 및 내용”과 “대처전략”은 “내담자의 장점”, 혹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 등으로 개념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담자의 “원함”은 “내담자의 인지적 특성” 혹은 장·단기 “상담 목표”로 진술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담목표 달성에 장애로 예상되는 요소들”은 “내담자의 약점 및 취약성”으로 진술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들 요소들은 1차 평정의 경우 상담 경력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므로 추후의 더 정교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셋째,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능력과 상담 경력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1차 평정에서 득점한 요소의 합계는 상담 경력과 약간 높은 정도의 정적 상관(.51)을 보였으며 가중치가 부여된 2차 평정점수의 경우 상담 경력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71)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상담경력이 상담자의 전문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류진혜, 1999; 심홍섭, 1998; Martin, Slemon, Hiebert, Hallberg, & Cummings, 1989;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n, & Hiebert, 1990; Mayfield, Kardash, & Kivlighan Jr., 1999)의 결론을 상담사례개념화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였다. 상담 경력이 사례개념화 능력을 자동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반복적인 혹은 다양한 상담 경험은 상담자가 문제를 효

울적으로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고 실제 상담개입 활동에서 지침이 되는 '사례개념화'를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Mayfield et al., 1999)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내용에 대한 평정 점수를 유목별로 합산하여 상담 경력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특별히 "문제와 내담자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평가"와 "상담 목표 및 계획" 유목에서 상담경력과 상당히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1차 평정과의 상관에 비해 질적인 수준을 평정한 2차 평정에서 상관계수가 일관되게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소별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경력이 높은 상담자의 상담사례개념화 수행수준에서 상담경력이 낮은 상담자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이 문제와 내담자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이해와 평가를 한다는 점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이는 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상담사례개념화의 핵심정의에 부합하는 개념화능력을 갖추게 됨을 시사한다.

상담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와 관련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밝힌 연구결과는, 상담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되면 상담에서 얻은 정보의 개별 요소보다는 패턴을 지각함으로써 더 나은 정보를 얻는다(Brammer, 1997)거나 경력상담자들이 초심상담자들에 비해 사례개념화에 있어 깊이가 있다(Glaser & Chi, 1988; Mayfield et al., 1999)에서 재인용)는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내담자의 대인관계 영역의 특징과 특별히 문제가 되는 대인관계 영역을 아는 능력이 상담 경력과 함께 높아진다는 결과는 경력상담자가

초심상담자에 비해 대인 상호작용적인 개념화에 능숙하다는 선행연구결과(Cummings et al., 1990)와 일치한다.

한편, 상담경력이 높을수록 "최종목표", "상담 전략"에서의 수행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으로 사료된다. 상담경력과 목표 부분의 상관이 새로이 발견된 것은 사례개념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상담 목표 설정 부분에 대해 별로 주목한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 연구들에서 초보상담자들의 경우 적절한 상담의도와 이에 부합하는 개입기술인지에 대한 고려없이 개입하며(Tracey, Hays, Malone, & Herman, 1988), 사례개념화 능력이 상담자로 하여금 상담기술들을 더욱 더 상담의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Mallinckrodt & Nelson, 1991)한 바 있었다. 본 연구는 상담 경력이 높은 상담자가 자신이 사례에 대해 이해한 바를 토대로 적합한 상담 목표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담실제와 상담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연구분야에서는 관심을 받아오지 못한 상담사례개념화에 대한 연구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상담자 교육에서는 사례개념화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사례개념화 교육의 자료나 사례개념화의 중요성이나 사례개념화에 관련된 실제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대로 교육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해 본다면, 본 연구는 추후 본격적인 사례개념화 연구들을 위한 초석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담 현장에서 중요

하게 여겨지는 사례개념화 요소들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최상위 전문 수퍼바이저들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연구도구로 하여 상담자들의 상담사례개념화 수행 능력의 특징 및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담사례개념화나 그 수준 측정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없었으며, 몇 개의 관련 연구도 외국에서 사용된 도구를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연구에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특징을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의 교육주체들에 의해 정리된, 그리고 사례개념화 교육에 관해 가장 많은 경험과 이해가 있는 최상위 전문 수퍼바이저들에 의해 타당성이 확인된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을 사용하여 상담자들의 사례개념화 수행능력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경력에 따라 상담자들이 실제 사례개념화를 한 내용의 특징과 수준을 밝힌 연구이다. 본 연구는 상담자들의 상담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 요소들 중 어떤 영역과 요소들에서 상담자의 경력에 따라 더 유의미한 향상이 일어나는지를 8개 하위 영역과 27개 요소별로 세부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상담자들의 상담 경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류진혜, 1999; 문수정, 1999; 심홍섭, 1998)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었다. 이러한 세부적인 발견들은 사례개념화 교육에 참고자료가 되어 줄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사례개념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실제 및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 요소목록에 대한 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 상담경력과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담자가 상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은 모두 상담의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상담의 성과는 내담자의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다면 사례개념화 능력의 향상도 상담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며 이러한 상담 성과는 내담자에게 만족을 가져다주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는 사례개념화 능력의 향상이 실제로 상담 성과로 연결되는지, 내담자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개념화 영역상의 어떤 부분의 향상이 내담자의 상담 만족도와 더 의미있게 관련되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 상담자의 정확한 사례개념화와 이를 내담자와 공유하는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 내담자의 상담 동기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평가하는 상담의 성과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다면 사례개념화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히 밝혀주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상담자들로 하여금 가상사례를 사례개념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상담자들이 실제 자신의 상담사례를 개념화하는 양상은 이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는 실제로 상담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개념화한 바에 대해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의 수준과 특징이 상담 경력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은 상담자의 상담 경력에 따라 사례개념화 능력과 수준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주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1회 상담으로 설정된 가상사례에 대해 사례개념화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례개념화는 그 본질상 상담 회기가 진행되면서 수 정보완되는 과정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실제로 그러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상담자들이 실제

자신의 사례를 진행해 나가면서 사례개념화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서 회기 진행과 함께 사례개념화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그 추이를 살펴본다면 회기 진행과 함께 사례개념화에서 무엇이 더 중점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특징들이 상담자의 경력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례개념화의 기술적(記述的) 측면인 내담자와 사례에 대한 이해, 처방(處方)적 측면인 상담 목표와 계획의 수립을 포괄하였으나, 연구설계상 사례개념화의 또 하나의 측면인 가설검증 부분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사례개념화는 1회에 완결되는 작업이 아니라 상담의 진행과 더불어 함께 수정, 보완되는 지속적인 작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설검증을 연구에 포괄하지 못한 것은 중요한 연구의 한계가 된다. 서구에서는 가설검증과 관련된 연구도 기술과 처방 측면에 대한 연구와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추후에 가설검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사례개념화 영역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지식을 구성해 나가게 되어 상담 및 수퍼비전 실제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현 (1992). 상담교육 방법으로서의 개인 수퍼비전 모델에 관한 복수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4(1), 19-53.
- 김수현 (1997). 정신역동적 사례공식화 방법과 개별적 갈등공식화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129-155.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기연 (1996). 상담전문지도에 대한 상담자의 요구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운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3(1), 79-93.
- 이장호, 김정희 (1989). 동양적 상담지도이론모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2(1), 5-15.
- 임인재 (1998). 심리 측정의 원리 5. 서울: 교육출판사.
- 장재홍 (1999). 계획공식화 방법에 의한 심리치료 과정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재영 (2001). 상담자의 개념화 발달수준과 사례개념화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ker, M., & Holloway, E. L. (1986). The use of supervision matrix. An expert from supervision workshop: The matrix model, *Oregon Association of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Covallis, OR, Feb.
- Bernard, J. M., & Goodyear, R. K. (1998).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USA: Allyn & Bacon.
- Brammer, R. (1997). Case conceptualization strateg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sts' experience levels, academic training, and mode of clinical inqui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 333-351.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s of

- counselor conceptualiz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Holloway, E. L. (1995). *Clinical supervision: A system approach*. CA : Sage.
- Loganbi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235-241.
- Mallinckrodt, B., & Nelson, M. L. (1991). Counselor training level and the formulation of the psychotherapeutic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133-138.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 A. L. (1989). Conceptualizations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93-396.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Jr, D. M.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d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s: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504-512.
- Stevens, M. J., & Morris, S. J. (1995). A format for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5, 82-94.
- Tracey, T. J., Hays, K. A., Malone, J., & Herman, B. (1988). Changes in counselor response as a function of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119-126.

원 고 접 수 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5. 29
게 재 결 정 일 : 2002. 6. 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and the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

Yoon-Joo Lee

Samsung Counseling Center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resent study, I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and the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 In this study, 81 counselors were asked to perform a case conceptualization of a made-up counseling case. For the first rating, 3 professional counselors analyzed the 81 counselors' written conceptualizations using the case conceptualization list developed by Lee(2001) and suggested which elements were used in the 81 counselors' case conceptualizations. For the second rating, one professional counselor rated the level of conceptualization for each element suggested from the first rating by giving weight scores from 1 to 3. Finally, I examin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 of the 81 counselors and the length of their counseling experiences. Results indicated that counselors with more counseling experiences used more elements in their case conceptualiz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and the rating scor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ratings showed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and the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 (for the 1st rating $r=.51$, $p<.01$; for the 2nd rating $r=.71$, $p<.01$). Specifically, the categories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lient's problems' and 'counseling goals and plans' and the elements of 'problematic interpersonal area', 'negative situations and weaknesses', 'ultimate counseling goals', and 'counseling strategi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In su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mplied that the length of counseling experiences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forming case conceptualization. Specifically, the more experienced counselors tend to show better performance of case conceptualization with integrated and systemic understandings of client and his/her problems and with the capability to build compatible, effective counseling goals and strategies. Thes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tend to support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studies in case conceptual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nd guideline for counselors and supervisors in their case conceptualization. Also, it should facilitate future study in case conceptualization in counseling.

Key Words : counseling, case conceptualization, counseling experiences, level of case conceptualization